

## 2005년 치과기공사의 흡연실태와 의식조사

박용덕 · 황경숙\* · 김남중\* · 강종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신흥대학 치기공과\*, 신흥대학 치위생과\*\*\*)

### Abstract

### Research on consciousness of the dental technicians about smoking realities-2005

**Yong-Duk Park, Kyung-Sook Hwang\*, Nam-Joong Kim\*, Jong-Oh Kang\*\***

Dep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Kyung Hee Univ.  
Dept. of Dental Tech., Shinheung College\*, Dept. of Dental hygiene., Shinheung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smoking of dental technicians in 2005, and we have distributed questionnaires about smoking in 2005-KDTA general meeting and analyzed them. All 555 respondents who attended KDTA general meeting were selected by random sampling. However we dismissed 41 because of invalidness, so we got 504 people. Therefore, we have got conclusions below:

1. The rate of smokers who attended in 2005 KDTA was 33.93%, 46.3% in men, 1.44% in women. When we compared to other specialist groups, the rate of dental technician smokers was higher than them.
2. When we analyzed the ages of first smoking, 55.56% of the people started to smoke when they were in 24 years old. This result was very similar to the rate of dentist smokers in 2005 KDA research.
3. According to the answers of smokers and people who wire smokers in the past about quitting smoking period and willness in future, 60.82% among all members failed to quit smoking and also 69.2% among all members did not leap over 3 months but, they have

#### 교신저자

■성명 : 박 용 덕      ■전화 : 02-961-0344      ■E-mail : iam2875@khu.ac.kr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thought to quit smoking for 6 months.

4. According to the answers about antismoking training related to environment in dental and clinical labs, most dental technicians(92.66%) have never been trained, also 37.70% among all members have not fulfilled their duty at self office. They have not recognized the danger of the indirect smoking.

5. When we asked chiefs in dental and clinical labs, the reason why they, didn't do the antismoking training their staffs, 32.1% of them replied that they were so busy, and 42.13% did because of their staffs, abhorrence and needlessness.

6. As Pan-dentistry members, over 80% agreed to the thought of the antismoking, also had medical knowledge about smoking. So we have the conclusion that dental technicians have identification as the Pan-dentistry members.

7. Most dental technicians expected KDTA to play a role about the antismoking training for their members.

We have two suggestions to KDTA about the antismoking problem for members according to above conclusions.

First, KDTA should prepare the antismoking training in the curriculum. Second, KDTA should support the antismoking programs of schools for students.

◎ Key Words: smoking, KDTA meeting, dental technician

## I. 서 론

1963년 미국인의 흡연율은 42%로 1인당 담배소비량이 최고점에 이르렀으나 이듬해 1964년 미 보건성 공중위생국장의 흡연은 폐암을 유도한다는 발표에 의해 2년 단위로 1%씩 흡연율이 감소하여 1990년 25.5%의 흡연율로 4천4백만 명이 이 기간 동안 흡연을 중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1965년부터 담배갑에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법적으로 의무화시켰으며, 최근까지 단일 주제의 항목으로 단연 흡연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1994년 Peto 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

동유럽인구의 50%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의 원인으로 사망했으며, 서유럽의 경우는 매년 50만 명이 흡연의 영향으로 사망한다고 했다. 또한 2020년에는 1천만 명이 흡연과 관련 있는 병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영향으로 21세기 들어 금연에 대한 열풍이 일어났는데, 사회 유명 인사들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이로 인한 금연운동이 사회 각계 각층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신경균, 1999), 또한 공영방송을 포함하여 민영방송까지 흡연 장면의 방영금지과 촬영금지를 의무하고 있음에 따라 더 이상 안

방의 가족 휴식공간에서조차 흡연 장면이 사라지게 되었다(조원용, 2004). 또한 국회에서는 한때 길거리 흡연규제에 관한 법률 제안이 잇따랐으며, 국민건강증진법의 발효와 함께 흡연금지구역의 확대와 담배값 상승으로 금연 욕구를 강제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흡연율의 감소가 조금씩 나타났지만 2005년 한국금연운동본부의 대한민국 성인 흡연율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성인남성 흡연율이 50.3% 이었으며, 성인여자의 흡연율이 3.1% 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2010년 성인남자 흡연율의 목표치를 재수정하여 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사회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도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치과기공사는 범 치과 의료계의 일환으로 의료계의 한축을 담당하는 사회적인 전문 기술인으로써 의무를 깨우치며 자신들의 금연 활동을 우선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인 금연 열풍 속에서 이웃사회에 금연을 권고하며 또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자신들의 작업환경에서의 건강을 지키고자 2005년 치과기공사 금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치과기공계의 향후 금연운동 방향과 과제 등을 제시하며 향후 연구가들에 의해 기초자료로 쓰이도록 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대상

2005년 7월에 실시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한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

를 하였으며, 응답자 총 555명 중 유효응답자 50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설문조사 각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응답자 총 555명의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분석에 부적격한 41명의 응답지를 배제하고 최종 분석은 5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연령계층별로 세분하여 조사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내용으로 전신질환유무, 직위와 성별에 따른 분포, 대상자 모두의 현재 흡연과 금연 비흡연에 따른 과거와 현재의 흡연정보, 치과기공소나 기공실의 임상현장과 관련된 금연정보, 치과기공사의 흡연에 대한 인식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기술적 통계량으로 분석하였다.

### 1. 치과기공사 설문응답자중 전신질환 유무에 대한 결과

총 504명을 대상으로 한 치과기공사들의 전신질환 유무를 묻는 답변에 총 20명(3.97%)이 응답하였으며, 그중 남성이 15명(4.11%), 여성이 5명(3.6%)의 응답을 하였다. 대부분의 치과기공사들은 자신이 전신질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표 1).

표 1. 치과기공사 설문응답자중 전신질환 유무에 대한 응답(%)

|     | 무          |            | 유        |         |
|-----|------------|------------|----------|---------|
|     | 남          | 여          | 남        | 여       |
| 소 계 | 50(95.89)  | 134(96.40) | 15(4.11) | 5(3.60) |
| 합 계 | 484(96.03) |            | 20(3.97) |         |

**2. 치과기공사의 직위와 성별에 따른 연령 분포**

치과기공사의 위치는 면허종별 의료기사 가운데 유일한 독립적 사업기반을 가지고 개설할 수 있는 범의료계의 일환이다. 이들이 직업 현장에서 구별될 수 있는 직위는 편의상 현재 관행되어 부르고 학교 교육이나 임상현장에서 관습적으로 인정하는 명칭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 504명의 현직 직위를 묻는 조사에서는 남성의 경우 일반 기사가 271명(53.77%)이었고, 소장의 경우 93명(18.45%), 실장이 80명(15.87%), 주임기사가 58명(11.5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종합학술대회에 참여로 자신의 지식이나 정보획득이 필요한 부류가 일반 기사라고 볼 때, 이들의 참여와 흡연실태 조사의 인원이 가장 많았음을 볼 수 있다(표 2).

표 2. 치과기공사의 직위와 성별에 따른 연령분포(%)

|     | 소 장       |         | 실 장       |         | 주임기사      |           | 일반기사       |            | 교 수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소 계 | 91(24.93) | 2(1.44) | 71(19.45) | 9(6.47) | 43(11.78) | 15(10.79) | 159(43.56) | 112(80.58) | 1(0.27) | 1(0.72) |
| 합 계 | 93(18.45) |         | 80(15.87) |         | 58(11.51) |           | 271(53.77) |            | 2(0.40) |         |

**3. 치과기공사의 현재 및 과거의 흡연상태**

치과기공사들의 흡연에 대한 질문에서 현재와 과거에 흡연을 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 총 504명 가운데 270명(53.57%)으로 이는 2005년 금연운동본부에서 대한민국 성인 흡연율조사에서 발표한 수치인 50.3%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금연에 성공

한 한 사람들은 99명(19.64%)으로써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은 171명(33.93%)으로 나타났고, 이들 가운데 자주 흡연하는 층이 133명(26.39%)이었고, 가끔 흡연하는 층이 38명(7.54%)이었다. 한 번도 흡연을 해 본적이 없는 비흡연자는 조사 인원 중 234명(46.43%)으로 조사되었다(표 3).

표 3. 치과기공사의 현재 및 과거의 흡연상태

|     | 현재흡연 |           | 과거흡연       | 비흡연       |            |
|-----|------|-----------|------------|-----------|------------|
|     | 가끔   | 자주        |            |           |            |
| 성 별 | 남    | 37(10.14) | 132(36.16) | 95(26.03) | 101(27.67) |
|     | 여    | 1(0.72)   | 1(0.72)    | 4(2.88)   | 133(95.68) |
|     | 계    | 38(7.54)  | 133(26.39) | 99(19.64) | 234(46.43) |

4. 현재 흡연자들의 흡연양상이나 정보

현재 흡연자들에게 최초 흡연을 시도한 연령을 묻는 질문에 19세 이하가 56명(32.75%), 20-24세가 95명(55.56%), 25-29세가 13명(7.60%), 30세 이후가 7명(4.09%)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하루 평균 흡연량을 묻는 질문에 11-20개피가 68명(39.7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10개피가 42명(24.56%), 40개피

초과가 20명(11.70%), 21-30개피가 19명(11.11%), 5개피이하가 16명(9.36%), 그리고 31-40개피가 6명(3.51%)으로 조사되었는데, 흡연자 가운데 하루에 40개피 이상을 피우는 흡연자가 단독 전문가 집단에서 상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 흡연자들의 총 흡연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10년 이상이 121명(70.76%), 5-9년이 37명(21.64%), 4년 이하가 13명(7.60%)으로 조사되었다(표 4).

표 4. 현재 흡연자들의 흡연양상이나 정보

| 문 항       | 구 분         | 인 원 수 (%)   |
|-----------|-------------|-------------|
| 흡연 시작연령   | 19세 이전      | 56(32.75)   |
|           | 20-24       | 95(55.56)   |
|           | 25-29       | 13(7.60)    |
|           | 30세 이후      | 7(4.09)     |
|           | 계           | 171(100.00) |
| 하루 평균 흡연량 | 5개피 이하      | 16(9.36)    |
|           | 6-10개피      | 42(24.56)   |
|           | 11-20개피     | 68(39.77)   |
|           | 21-30개피     | 19(11.11)   |
|           | 31-40개피     | 6(3.51)     |
|           | 40개피 초과     | 20(11.70)   |
| 계         | 171(100.00) |             |
| 총 흡연기간    | 4년이하        | 13(7.60)    |
|           | 5-9년        | 37(21.64)   |
|           | 10년 이상      | 121(70.76)  |
|           | 계           | 171(100.00) |

### 5. 현재 흡연자중 과거 금연한 경험이나 기간 또는 금연의지유무

표 5는 현재 흡연자들의 과거 금연경험에 대한 질문과 향후 금연의지를 묻는 답변의 결과로 현재 흡연자들은 과거 한차례 이상 금연경험을 가진 사람이 104명(60.82%)이었고, 금연기간은 1개월 이하가 43명(41.35%), 1-3개월

까지가 29명(27.88%), 3개월 초과-5개월 이하가 4명(3.85%), 6개월 이상 금연자가 28명(26.92%)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향후 재금연의지에 대한 응답은 6개월 이내라고 답변한 사람이 62.5% 가량 되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금연을 유지하다가 다시 흡연을 한 사람들의 재흡연동기는 향후연구의 과제이다.

표 5. 현재 흡연자중 과거 금연한 경험이나 기간 또는 금연의지 유무

| 문항         | 구분            | 인원수 (%)     |
|------------|---------------|-------------|
| 과거금연 경험유무  | 예             | 104(60.82)  |
|            | 아니오           | 67(39.18)   |
|            | 계             | 171(100.00) |
| 금연기간       | 1개월 이하        | 43(41.35)   |
|            | 1초과-3개월 이하    | 29(27.88)   |
|            | 3개월 초과-5개월 이하 | 4(3.85)     |
|            | 6개월이상         | 28(26.92)   |
|            | 계             | 104(100.00) |
| 향후 금연의지 유무 | 지금 당장         | 26(15.20)   |
|            | 6개월이내         | 81(47.37)   |
|            | 없다            | 64(37.43)   |
|            | 계             | 171(100.00) |

### 6. 금연을 한 대상자들의 과거 흡연에 관한 질문

표 6은 과거 흡연자로서 현재까지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 흡연에 대한 정보이다. 이들의 최초 흡연연령은 20-24세에 56명(56.57%), 19세 이전에 30명(30.30%), 25-29세에 10명(10.10%), 30세 이후에 3명(3.03%)이었다. 이는 현재 흡연자의 최초 흡연시도 연령과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과거 하루 평균 흡연량에 대한 질문에는 11-20개비가 43명

(43.43%), 6-10개비가 27명(27.27%), 5개비 이하가 14명(14.14%), 21-30개비가 12명(12.12%), 31-40개비가 2명(2.02%), 40개비 초과가 1명(1.01%)로 조사되었다. 과거 흡연량에 대한 현재 흡연자들과 비교분석에서 특이한 사항은 하루 평균 20개비를 초과하여 흡연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재 흡연자들에게 더 분포하였으며, 이러한 흡연량의 차이가 자신의 금연의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흡연중독에 대한 자신의 의지결여가 있어서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

초 금연을 시도한 연령은 30세 이후가 49명 (49.49%), 25-29세가 28명(28.28%), 20-24세가 18명(18.18%), 19세 이전이 4명(4.04%)으로 조사되었다.

표 6. 금연을 한 대상자들의 과거 흡연에 관련된 질문

| 문항            | 구분         | 인원수 (%)    |
|---------------|------------|------------|
| 흡연시작 연령       | 19세 이전     | 30(30.30)  |
|               | 20-24      | 56(56.57)  |
|               | 25-29      | 10(10.10)  |
|               | 30세 이후     | 3(3.03)    |
|               | 계          | 99(100.00) |
| 과거 하루평균 흡연량   | 5개피 이하     | 14(14.14)  |
|               | 6-10개피     | 27(27.27)  |
|               | 11-20개피    | 43(43.43)  |
|               | 21-30개피    | 12(12.12)  |
|               | 31-40개피    | 2(2.02)    |
|               | 40개피초과     | 1(1.01)    |
| 계             | 99(100.00) |            |
| 최초 금연 시 시도 연령 | 19세 이전     | 4(4.04)    |
|               | 20-24      | 18(18.18)  |
|               | 25-29      | 28(28.28)  |
|               | 30세 이후     | 49(49.49)  |
|               | 계          | 99(100.00) |

7. 금연자들의 주된 흡연중지 이유 13명(13.13%), 주위의 권유 3명(3.03%) 등이 주요인이었으며 그밖에 종교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금연분위기, 자녀의 교육상 좋지 않아서 흡연을 중단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7).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에게 금연을 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본인의 건강이 61명(61.62%), 백해무익하므로 14명(14.14%), 가족의 건강

표 7. 금연자들의 주된 흡연중지 이유

| 항목      | 인원수 (%)   | 항목         | 인원수 (%)    |
|---------|-----------|------------|------------|
| 본인의 건강  | 61(61.62) | 종교적 이유로    | 1(1.01)    |
| 가족의 건강  | 13(13.13) | 사회적 금연 분위기 | 1(1.01)    |
| 주위의 권유  | 3(3.03)   | 교육상 안 좋아서  | 1(1.01)    |
| 백해무익하므로 | 14(14.14) | 기타         | 5(5.05)    |
| 경제적 이유로 | 0(0.00)   | 총계         | 99(100.00) |

### 8. 치과기공소나 기공실의 임상현장과 관련된 금연정보

표 8은 현재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기공소나 치과병의원내 기공실의 임상현장과 관련된 금연정보에 대한 질문이다. 과거에 정식 금연 교육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대다수인 467명(92.66%)이 그러한 경험이나 기회가 없었다고 답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자신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이 흡연규제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90명(37.70%)으로 가장 많았고, 언제나 준수한다가 158명(31.35%), 때때로가 108명(21.43%)순으로 답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흡연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현재 치과기공소 소장과 실장에게만 따로 자신의 직원에 대한 금연교육 실시여부를 질문하였다. 이들 173명중 현재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장이나 실장이 28명(16.18%)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연 방법은 10명이 금연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직원에게 니코틴패치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기타라고 답한 응답층은 금연상담이라기 보다는 흡연의 해악성 대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해가면서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173명의 소장이나 실장가운데 대다수인 145명(83.82%)으로 직원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없다는 답을 하였다.

표 8. 치과기공소나 기공실의 임상현장과 관련된 금연정보

| 문항                   | 구분                        | 인원수 (%)     |
|----------------------|---------------------------|-------------|
| 응답자의 정식 금연 피교육 경험 여부 | 예                         | 37(7.34)    |
|                      | 아니오                       | 467(92.66)  |
|                      | 총계                        | 504(100.00) |
| 자신의 근무처에서의 흡연규제 준수유무 | 언제나                       | 158(31.35)  |
|                      | 때때로                       | 108(21.43)  |
|                      | 지키지 않음                    | 190(37.70)  |
|                      | 모름                        | 48(9.52)    |
|                      | 총계                        | 504(100.00) |
| 현재 직원의 금연교육실시 여부*    | 1) 실시중인 경우의 금연방법          | 28(16.18)   |
|                      | - 금연 방법에 대해 상담진행          | 10          |
|                      | - 금연을 위해 직원에게 니코틴패치나 자료제공 | 1           |
|                      | - 기타                      | 17          |
|                      | 2) 실시할 의향이 없거나 하지 않는 경우   | 145(83.82)  |
| 총계                   | 173                       |             |

\*응답은 현재 치과기공소 소장과 기공실장에 한한 질문



### 9. 현재 직원에게 금연 교육을 하지 못하는 이유

현재 직원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쁜 업무시간에 쫓겨서'가 39명(26.90%), '직원들의 금연교육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34명(23.45%), '본인이 금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이 32명(22.07%), '금연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심' 때문이 16명(11.03%), '금연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11명(7.59%), '금연자료 등을 구하기가 어려움'의

호소가 3명(2.07%)으로 답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여건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 바쁜 업무시간에 쫓겨서, 직원들의 금연교육에 대한 거부감, 본인이 금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금연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 등의 순서로 답했으나, 어떠한 상황이든 금연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없다 라고 답한 사람들은 소장이나 실장 본인이 금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금연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심, 직원들의 금연교육에 대한 거부감 등의 순서로 답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표 9. 현재 직원에 대한 금연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 (소장과 기공실장에 한한 질문)

| 항 목                  | 여건상 실시 못함 | 실시의향이 없음 | 인 원 수 (%)   |
|----------------------|-----------|----------|-------------|
| 본인이 금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 18        | 14       | 32(22.07)   |
| 금연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심      | 9         | 7        | 16(11.03)   |
| 금연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 | 10        | 1        | 11(7.59)    |
| 금연자료 등을 구하기가 어려움     | 3         | 0        | 3(2.07)     |
| 보조인력의 금연교육에 대한 비협조   | 2         | 0        | 2(1.38)     |
| 직원들의 금연교육에 대한 거부감    | 27        | 7        | 34(23.45)   |
| 바쁜 업무시간에 쫓겨서         | 35        | 4        | 39(26.90)   |
| 기 타                  | 5         | 3        | 8(5.52)     |
| 총 계                  | 109       | 36       | 145(100.00) |

### 10. 치과기공사의 흡연에 대한 인식

표 10은 치과기공사들의 흡연과 관련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크게 범 치과의료인으로서 금연에 대한 의식과 담배를 제공하는 공급자에 대한 인식과, 흡연과 관련된 의학적인 지식의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치과기공사협회가

소속 회원들의 금연관련 역할수행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범 치과의료인으로서 금연에 대한 의식으로 '2)범 치과의료인은 환자와 대중의 금연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찬성하는 의견이 88.9%이었고, '3)범 치과의료인은 금연함으로써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에도 약 88.9%가 찬성을 하였다. 또한 '4)범 치과의료인이 금연을 권유하면 환자들이 금연할 확률이 증가한다' 에 찬성한 답변이 87.3%이었고, '5)범 치과의료인은 언제나 아이들 주위에서는 환자에게 금연할 것을 충고해야 한다' 에 찬성한 사람이 94.6%나 되었다. '6)범 치과의료인은 환자에게 언제나 금연에 대해 충고를 해야 한다' 에 찬성자가 85.4%이었으며, '7)흡연을 하는 범 치과의료인은 환자에게 금연을 덜 권하는 경향이 있다' 에 찬성하는 사람이 81.74%, '8)범 치과의료인은 금연 방법에 대한 특별한 수련이 필요하다' 에 찬성하는 사람이 81.75%로 조사되었다.

치과기공사들의 담배를 제공하는 공급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10) 담뱃갑의 경고 문구를 크게 넣어야 한다' 에 찬성자는 90.67%, '11)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97.63%, '12)담배회사의 대형 설치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92.86%, '13) 담배 제품의 광고를 완전히 금지시켜야 한다. 85.72%의 찬성을 보였으나, '15)담배 가격을 많이 올려야 한다' 라는 의견에는 70.45%의 찬성을 보였는데, 흡연자들은 담배가격의 상승은 자신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므로 담배가격상승에 대한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흡연과 관련된 의학적인 지식의 사실인지여부에 대한 항목으로 '1)흡연은 당신의 건강에 해롭다' 에 찬성한 사람은 97.82%, '14)병원이나 의료기관 내에서

는 금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 찬성자는 95.43%, '16)신생아 돌연 사망은 간접흡연과 연관이 있다' 에 찬성자는 88.89%, '17)임신 동안 산모의 흡연이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에 찬성자는 96.03%, '18)흡연은 치주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에 찬성자는 95.83%, '19)간접흡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성인들보다 폐질환의 이환율을 높인다' 에 찬성자는 95.04%, '20)아버지의 흡연은 자녀에게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증가시킨다' 에 찬성자는 95.24%로 나타났다.

그리고 폐쇄된 공공시설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96.23%가 찬성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대다수는 치과기공소나 기공실에서 흡연금지에 대한 의견에 직간접으로 찬성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치과기공사협회가 소속 회원들의 건강을 위한 금연관련 역할수행에 대한 항목에서 '21)대한기공사협회의 학술대회 때, 금연에 대한 강의를 필요하다' 에 찬성자는 76%이었으며, 특히, '22) 대한기공사협회에서 금연교육이나 자료를 제공한다면 기공소장님이나 실장님께서서는 직원들의 금연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라는 의견에 85.71%가 찬성을 보임으로서 치과기공사들의 금연에 대한 의식과 치과기공사협회에 대한 요구도를 볼 수 있는 척도로써 자신들의 의견이 집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치과기공사의 흡연에 대한 인식조사

| 항목  | 의견 | 강력히 반대    | 대체로 반대     | 대체로 찬성     | 강력히 찬성     |
|-----|----|-----------|------------|------------|------------|
| 1)  |    | 6(1.19)   | 5(0.99)    | 150(29.76) | 343(68.06) |
| 2)  |    | 4(0.79)   | 21(4.17)   | 279(55.36) | 200(39.68) |
| 3)  |    | 2(0.40)   | 54(10.71)  | 239(47.42) | 209(41.47) |
| 4)  |    | 6(1.19)   | 58(11.51)  | 275(54.56) | 165(32.74) |
| 5)  |    | 3(0.60)   | 24(4.76)   | 228(45.24) | 249(49.40) |
| 6)  |    | 4(0.79)   | 70(13.89)  | 240(47.62) | 190(37.70) |
| 7)  |    | 6(1.19)   | 86(17.06)  | 276(54.76) | 136(26.98) |
| 8)  |    | 3(0.60)   | 89(17.66)  | 252(50.00) | 160(31.75) |
| 9)  |    | 3(0.60)   | 16(3.17)   | 175(34.72) | 310(61.51) |
| 10) |    | 5(0.99)   | 42(8.33)   | 205(40.67) | 252(50.00) |
| 11) |    | 3(0.60)   | 12(2.38)   | 153(30.36) | 336(66.67) |
| 12) |    | 4(0.79)   | 37(7.34)   | 214(42.46) | 249(49.40) |
| 13) |    | 5(0.99)   | 67(13.29)  | 203(40.28) | 229(45.44) |
| 14) |    | 6(1.19)   | 17(3.37)   | 161(31.94) | 320(63.49) |
| 15) |    | 63(12.50) | 91(18.06)  | 141(27.98) | 209(41.47) |
| 16) |    | 8(1.59)   | 48(9.52)   | 263(52.18) | 185(36.71) |
| 17) |    | 1(0.20)   | 19(3.77)   | 245(48.61) | 239(47.42) |
| 18) |    | 2(0.40)   | 19(3.77)   | 240(47.62) | 243(48.21) |
| 19) |    | 4(0.79)   | 21(4.17)   | 237(47.02) | 242(48.02) |
| 20) |    | 2(0.40)   | 22(4.37)   | 245(48.61) | 235(46.63) |
| 21) |    | 17(3.37)  | 104(20.63) | 223(44.25) | 160(31.75) |
| 22) |    | 12(2.38)  | 60(11.90)  | 213(42.26) | 219(43.45) |

- 1) 흡연은 당신의 건강에 해롭다.
- 2) 범 치과의료인은 환자와 대중의 금연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3) 범 치과의료인은 금연함으로써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 4) 범 치과의료인이 금연을 권유하면 환자들이 금연할 확률이 증가한다.
- 5) 범 치과의료인은 언제나 아이들 주위에서는 환자에게 금연할 것을 충고해야 한다.
- 6) 범 치과의료인은 환자에게 언제나 금연에 대해 충고를 해야 한다.
- 7) 흡연을 하는 범 치과의료인은 환자에게 금연을 덜 권하는 경향이 있다.
- 8) 범 치과의료인은 금연 방법에 대한 특별한 수련이 필요하다.
- 9) 폐쇄된 공공시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야 한다.
- 10) 담뱃갑의 경고 문구를 크게 넣어야 한다.

- 11)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 12) 담배회사의 대형 설치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 13) 담배 제품의 광고를 완전히 금지시켜야 한다.
- 14) 병원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는 금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 15) 담배 가격을 많이 올려야 한다.
- 16) 신생아 돌연 사망은 간접흡연과 연관이 있다.
- 17) 임신 동안 산모의 흡연이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18) 흡연은 치주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 19) 간접흡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성인들보다 폐질환의 이환율을 높인다.
- 20) 아버지의 흡연은 자녀에게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증가시킨다.
- 21)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학술대회 때, 금연에 대한 강의를 필요하다.
- 22)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 금연교육이나 자료를 제공한다면 기공소장님(실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금연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 IV. 고 찰

세계 각국에서 공공장소 금연구역의 확대나 담배광고 금지 등의 꾸준한 금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일부국가에서는 강력한 법제화를 통해 점차 흡연권과 혐연권의 논리가 논쟁의 가소를 밟고 있다(정광모, 2000). 또한 국내에서도 길거리 흡연규제라는 법안을 2년째 상정하여 최근 2006년 4월에도 법안 통과를 위해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와 사회 공익단체들의 오랜 시간동안의 노력으로 2000년 들어 성인 흡연율이 감소되어 왔고, 2006년에 일부 매스컴이 조사한 기사를 인용하면 49%라는 놀라운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흡연율의 보고와 함께 지속적인 금연운동은 범 의료계의 오랜 과제이며 당면한 의무라고 판단할 때, 범 의료인이 우선 금연을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미래에 더욱 기대할 수 있는 건강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응답자 중 전신질환이 있음을 밝힌 사람은 총 20명(3.97%)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특정전문가 집단에서 이러한 수치는 매우 높은 것임을 감안할 때 치과기공사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향후 치과기공사의 전체 건강향상을 위해 이들을 배려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응답자의 65%를 차지하는 주임기사와 일반기사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써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집단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배려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서흥관 등의 2000년 우리나라 의사의 흡연 실태조사에서 전체 흡연율이 28.3%이었고, 이들 중 남성 흡연율이 28.3%, 여성 흡연율이 2.3%로 조사한 바 있으며, 또한 2005년 박용덕 등의 치과의를 대상으로 한 전체 흡연율이 29.7%이었으며, 이들 중 남성 흡연율이 29.4%, 여성 흡연율이 0.3%로 조사한 바 있다. 본 연구진이 조사에 의하면 치과기공사의

2005년 흡연율은 총 33.93%이었으며, 이들 중 남성 흡연율이 46.3%이었고, 여성 흡연율이 1.44%로 조사되었다. 범 의료계의 다른 전문가 집단인 의사나 치과의사에 비해 총 흡연연령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지만, 각각 성별 조사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남성 치과기공사의 흡연율은 다른 범 의료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있을 정도로 남성 치과기공사의 흡연율이 높았다. 다만 여성 치과기공사의 흡연율이 타 전문가 집단보다 유의한 수준차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맹광호의 조사에서 일반 대한민국 성인의 흡연율을 보면, 남성이 56.7%, 여성이 3.5%로 조사된바, 전체적인 흡연율이나 남성의 흡연율은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최초 흡연연령의 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일반 성인들은 19세 이전 학령기에 흡연시작은 23% 내외였으나 치과기공사들은 32.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한국보건연구원, 2005). 또한 20-24세에 최초 흡연시작율이 55.56%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학창시절에 자신에게 과제와 실습이라는 교육이 스트레스로 다가와 흡연을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20대 중반이후 신규 흡연자는 어느 집단과 마찬가지로 10% 내외로 분포되는 바, 치과공과 학교 교육에 흡연에 대한 해악성을 교육하며, 금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정보일 것이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2005년부터 치과대학생 시기에 최초 흡연자가 64.69%로 조사된바 학생들의 최초 흡연율을 막고자 11개 치과대학서 매년 학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볼 때, 대한 치과기공사협회에서

도 이러한 치과기공사의 금연에 의한 건강 돌보기를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사료된다.

현재 흡연자중 과거 금연한 경험이나 기간도는 금연의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60.82%가 과거 금연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였으며, 이때 금연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한 사람이 69.2%로서 이들 대부분이 본 조사 시점에서 향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금연을 시도하겠다고 응답했다.

과거 흡연을 하였다가 현재 금연 중인 치과기공사들의 응답을 보면, 치과기공사의 과거와 현재 흡연자를 포함한 흡연율은 53.57%로서 이는 대한민국 성인 흡연율이 근접한 수치이지만, 범 의료계의 특정 전문가 집단으로써 금연을 성공한 확률이 19.64%로 조사되어 일반들보다는 흡연의 해악성을 보다 깊이 인식하고 금연 행동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과거흡연자들은 최초금연시도를 20대 중반부터 시작하였다가 결국 30대 이후에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의 금연의 주된 이유는 본인의 건강 때문이라는 답변이 61.62%, 백해무익이 14.14%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13.13%로 조사되어 결국 건강과 관련된 응답이 88.9%로서 흡연이 건강에 해악이라는 사실에 동의를 하고 자신의 이지를 통하여 이를 위해서 실행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기공소나 기공실의 임상현장과 관련된 금연정보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해 보면, 응답자 대다수는 정식으로 금연에 대한 피교육을 받은 바가 없었다(92.66%). 또한 자신의 근무처에서 흡연규제를 할 때 준수유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이 37.70%나 조사되어

타인의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근무처 환경에 일정한 개선의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범위인 치과기공소 소장과 기공실장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의 직원에 대한 금연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직원들의 금연교육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답한 사람이 23.35%, 본인이 금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22.07%로써, 이들 답변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방치내지는 타인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일부에서 금연교육에 대한 지식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으며, 현재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치과기공소나 기공실이 있었으며(16.18%) 그 방법으로는 금연상담을 진행하거나 니코틴 팩 등의 제공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사의 흡연에 대한 20개의 인식도조사에서 대체적으로 90%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여서 타 전문가 집단과 동일한 수준의 의식을 가졌다. 특히, 2) 범 치과의료인은 환자과 대중의 금연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범 치과의료인은 금연함으로써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4) 범 치과의료인이 금연을 권유하면 환자들이 금연할 확률이 증가한다. 5) 범 치과의료인은 언제나 아이들 주위에서는 환자에게 금연할 것을 충고해야 한다. 6) 범 치과의료인은 환자에게 언제나 금연에 대해 충고를 해야 한다. 등의 의견에 90% 내외의 찬성을 함으로써 치과기공사는 타인에게 우선 금연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8) 범 치과의료인은 금연 방법에 대한 특별한 수련이 필요하다.

라는 질문에 동의함으로써 금연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담배와 관련된 우리 사회에 대한 요구도로서 9) 폐쇄된 공공시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야 한다. 10) 담뱃갑의 경고 문구를 크게 넣어야 한다. 11)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12) 담배회사의 대형 설치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13) 담배 제품의 광고를 완전히 금지시켜야 한다. 등에 대한 질문에도 90%이상의 답변을 보임으로써 현재 사회가 흡연에 대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치과기공사들의 의식도 더욱 깨어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격정책을 통한 금연정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예상 때문에 기피한 답변으로 생각되지만 응답자 70%정도는 여전히 찬성하고 있었다. 14) 병원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는 금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15) 담배 가격을 많이 올려야 한다. 16) 신생아 돌연 사망은 간접흡연과 연관이 있다. 17) 임신 동안 산모의 흡연이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8) 흡연은 치주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19) 간접흡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성인들보다 폐질환의 이환율을 높인다. 20) 아버지의 흡연은 자녀에게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증가시킨다. 등 치과기공사들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관련 설문에서도 90%이상의 찬성을 보임으로써 담배에 의한 해악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치과기공사 보수교육이나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종합학술대회때 금연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 응답에는 76%정도가 찬성을 하였고, 대한기공사협회에서 금연교육이나 자

료를 제공한다면 치과기공소 소장이나 실장은 직원들의 금연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라는 의견에도 85.71%의 찬성을 보임으로써 협회 회원들의 요구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건강 개념을 협회차원에서 인식하고 지도할 책무가 있다고 사료된다.

## V. 결 론

2005년 7월에 실시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한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본 설문지를 제공하여 자기기입 방식을 통한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응답자 총 555명 중 유효응답자 50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원들이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2005년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소속 회원들의 흡연율은 33.93%이었고, 이중 남성치과기공사의 흡연율이 46.3%이었고, 여성회원의 흡연율이 1.44% 이었으며, 전문가 집단의 비교 시 남성의 흡연율은 타 직종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2. 최초 흡연연령의 조사를 보면, 55.56%가 20-24세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05년 치과 의사 흡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3. 현재 흡연자중 과거 금연을 했거나 금연

기간 또는 금연의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60.82%가 과거 금연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였으며, 이때 금연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한 사람이 69.2%로서 이들 대부분이 본 조사 시점에서 향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금연을 시도하겠다고 응답했다.

4. 치과기공소나 기공실의 임상현장과 관련된 금연정보에 대한 응답자 대다수는 정식으로 금연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었으며 (92.66%). 또한 자신의 근무처에서 흡연규제를 할 때 준수유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이 37.70%나 조사되어 타인의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치과기공소 소장과 기공실장을 대상으로 직원에 대한 금연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바쁜 업무시간에 쫓겨서라고 32.1%가 응답했으며, 직원들의 금연교육에 대한 거부감과 본인이 금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42.13%나 되었다.

6. 범 치과의료인으로서 금연에 대한 의식과 담배를 제공하는 공급자에 대한 인식과, 흡연과 관련된 의학적인 지식의 사실 인지여부에 대한 인식은 80%이상의 적극찬성을 보임으로써 다른 특정 그룹과 동일하게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7. 응답자의 대다수는 치과기공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소속 회원들의 금연관련 역할수행 등에 기대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치과기공사들의 금연에 대한 현재 사회적 흐름에 보조하고자 하였음을 찾을 수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회원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금연매체나 교육 자료의 제작 그리고 금연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수교육 등을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초의 흡연연령이 대다수가 치과공과 재학생 시절에 시작하므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 〈참고문헌〉

- 맹광호. 2003년 우리나라 성인흡연률 조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3.
- 박용덕. 2005년 치과의사 흡연실태 조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2006.
- 서홍관. 우리나라 의사흡연률 및 흡연행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2001.
- 신경균. 가정의학과 외래에서 금연권고. 가정의학회지, 20(5):510-519, 1999.
- 정광모. 흡연과 건강. 사단법인 금연운동본부협의회, 2000.
- 조원웅 역. 건강과 생활습관. 웰빙나라, 2004.
- 한국보건회연구원.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2005.
- Peto R. Smoking and Death. BMJ, 309(6959): 937-939, 1994.
-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the Health Benefits of Smoking Cessation.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78, 1963.

WHO. Fact sheets, Smoking and Women, 1997.

WHO. First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n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Provisional agenda item, 1999.